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창세기 29장 1-12절

날짜: 2월 22일, 2026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타락한 인간 본질을 가진 수많은 사람이 오늘날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담과 두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행복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평생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다가 끝을 맺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열차 표를 얻기 위한 대합실이고, 사람이 죽으면 묻히는 '무덤', 이 두 가지 외에 이 세상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이 이 본질을 모르면 세상에서 헛된 계획을 세우고 속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 했지만, 결국 지쳐서 소망을 잃고 삼촌 집으로 피신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던 절망적인 광야에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 야곱에게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야곱과 같은 쓸모없는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보석이 되며, 하나님의 전이자 하늘의 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비로소 자신이 누워 있던 그 비참한 들판이 바로 '벧엘'이자 하나님과 통하는 문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닫고도 곧바로 육신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조건부 서원을 합니다.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계시의 빛을 받았음에도 금방 육의 생각으로 돌아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

리는 우리들의 신앙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찬란한 꿈만 꾸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그를 깨뜨리는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훈련을 위해서는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야곱을 '종합 훈련소'와 같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입소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주변 인물들을 동역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을 죽이려 했던 에서가 그들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남편, 아내, 사업, 질병, 자녀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감옥에 집어넣어 훈련받게 만드는 도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모십니다. "네가 죽으면 네 안에 있는 내가 네가 되어 네 인생을 살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야곱이라 반과 라헬을 쉽게 만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였으며, 이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모든 기구(고난과 환경)를 완벽하게 준비해두셨음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예수님이 닦아놓으신 길을 알지 못한 채 내 힘으로 길을 찾아 헤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신 길이 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는 이 '레일'을 발견하면 기도가 쉬워지고 찬송이 쉬워집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소리 지르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응답된 것을 믿고 주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삶이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레아였습니다. 인간이 선택권을 가지고 자기 소원대로 하려 할 때 인생은 복잡해집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을 봉사해야 했고, 네 명의 아내 사이에서 자식 경쟁에 휘말리며 철저히 부서졌습니다. 종일 들판에서 일하고 돌아와도 자기 몸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어려움에 주목하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의 목적에만 주의하십니다. 야곱의 피를 꺾기 위

해 더 피가 많은 라반을 붙이시고, 그를 철저히 낮추어 '이스라엘'로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반대되는 환경과 시련이 오는 이유는 우리 안의 선악과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육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예수의 생애가 펼쳐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이미 아들 예수로 보십니다. 우리가 훈련 중에 실수하거나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정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이미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새 피조물이 된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하여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때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Sermon of the Week:

How God Trains Us Through Our Suffering



Passage: Genesis 29:1-12 (ESV)

Date: February 22, 2026

Pastor: Dong Suk Chung

Countless people today, burdened by their fallen human nature, have lost hope and wander in discouragement and fear. No matter how hard they strive for happiness, they never truly understand what it is—and so the lives of worldly people are spent chasing after things, only to reach the end empty-handed. This earth is nothing more than a waiting room where we obtain a train ticket to our eternal homeland, the Kingdom of God, and is a grave where we are buried when we die. Beyond these two things, this world holds no meaning in itself. When people are ignorant of this truth, they spend their lives making useless plans and deceiving themselves.

Jacob tried to achieve his own goals by deceiving his father and brother, but he eventually grew exhausted, lost hope, and found himself fleeing to his uncle's house. In that desolate wilderness, sleeping on a stone for a pillow, God revealed a startling revelation to Jacob through a dream. The dream revealed that a worthless life like Jacob's could become an eternal jewel in Christ—the house of God and the gate of heaven. Jacob finally discovered that the miserable field where he lay was none other than Bethel, the gate leading to God. Yet, even after realizing this profound truth, Jacob quickly reverted to his fleshly nature and made a conditional vow to God: "If you give me food to eat and clothes to wear and bring me safely

back to my father's house, then the Lord will be my God". This mirrors our own faith; even after receiving the light of revelation, we quickly slip back into worldly thoughts and cling to the basic anxieties of making a living.

God does not merely give Jacob glorious dreams; He begins training him to break him and make him into a person worthy of the purpose of those dreams. This training requires the death of the old self (the ego). To enlist Jacob into the "comprehensive boot camp" of his uncle Laban's house, God used the people around Jacob as His instruments: Isaac, Rebekah, and even Esau, who had wanted to kill him. In the same way, our spouses, businesses, illnesses, and children today are tools that God uses to place us in His "prison" for training. God leads us into death, saying: "If you die, I – who am within you – will become you and live your life". The fact that Jacob so easily encountered Laban and Rachel was due to God's sovereign guidance, a sign that He has already perfectly prepared every instrument (every trial and circumstance) for our training.

A life of faith can feel difficult when we needlessly wander and exhaust ourselves by trying to find our own way without realizing that Jesus has already paved the path for us. That path has already been completed by Jesus. When we discover the path of these already laid-down "train tracks"—the truth that we have died and risen together with Christ—prayer becomes easier and praise comes naturally. Instead of praying for our own will to be fulfilled, we live a life of trusting what has already been answered; thus, manifesting the victory of the Lord.

Jacob chose Rachel, the woman he

loved, but God chose Leah. Life becomes complicated when people try to assert their freedom to choose and pursue their own desires. Jacob had to serve 14 years to obtain Rachel and was utterly broken by the bitter rivalry among his four wives and their children. He reached a miserable state where, after working in the fields all day, he didn't even have authority over his own household. Yet, God does not focus on Jacob's flaws; He pays attention only to His own purpose. To break Jacob's cunning nature, God placed him with Laban, who was even more cunning, and humbled Jacob completely until he transformed into "Israel". In the same way, every trial, every setback, every opposition in our lives has one purpose: to crucify the old self within us, so that only God's will may be manifested.

The reason God chose us is not to fulfill our fleshly desires, but so that the life of Jesus might unfold through us. When God looks at us, He already sees us as His Son, Jesus. Even when we make mistakes or fall into sin during our training, our identity as children of God is never revoked. When Satan condemns us, God is pleased when we boldly declare, "I am a child of God". No matter what kind of life we have lived on this earth, when we believe that we have already been made clean by the blood of Jesus, we can give thanks. Through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Christ, we have become children of God and we must hold fast to this truth: that we are new creations in Christ.

나성교회 연락처

- +1 562-690-7979
- <https://nasungchurch.net>
- information@nasungchurch.net
-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삼성교회 연락처

- +82 02-2293-4421
- <http://samsungch.or.kr>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00 (우) 04701
- 지하철
 - 2호선 상왕십리역(1번 출구)
 - 2호선 신당역(2번 출구)
- 버스
 - 147, 202, 241, 302, 463, N62, N73, 1017, 2012, 2013, 2014, 2015, 6211, 성동01

삼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대예배실 (지하 1,2층)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부	오전 11시	4층 예배실
유년 주일학교	오전 11시	2층 예배실
청소년부	오전 10시 30분	3층 예배실
청년부	오후 2시 30분	3층 예배실